



남원시는 아이 낳기 기르기 좋은 남원을 만들기 위해 두 팔을 걷어 부쳤다. 사진은 산모보건의료센터 개소식.

# 아이 낳기 좋은 도시 만들기

### 남원시, 출산장려금·난임치료·신생아 건강보험료 지원 등 시행

남원시(시장 이환주)는 아이 낳고 기르기 좋은 남원을 만들기 위해 두 팔을 걷어 부쳤다.

우리나라의 합계 출산율은 2014년 현재 1.205명으로 전 세계에서 합계출산율이 가장 낮은 초저출산국으로 OECD 국가 중 유일하게 10년 동안 저출산의 늪에서 탈피를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남원시의 합계출산율은 1.473명으로 전국 평균과 전북 평균 1.329명 보다 높으나 저출산·고령화에 대응하고 남원시의 미래 성장 동력을 지속 창출하기 위해서 출산장려 정책을 시정의 모든 역량을 결집하여 추진하기로 하였다.

남원시는 현재 출생하는 전 신생아에 대해 <출산장려금>을 50만원에서 400만원까지 지급 하고, 셋째 이상아를 출산한 산모에게는 <산후조리금> 50만원을 지급하며, 성공적인 모유수

유를 위해 전문 유축기를 무료로 대여하는 물론 전문가를 초빙하여 모유수유 교실을 운영하고 있다.

또한 남원시한의사회와 함께 <한방난임치료 지원사업>을, 남원의료원과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관리를 위해 전문 간호사가 가정으로 방문하는 <가정간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올해부터는 취약한 분만의료서비스 개선을 위해 거점 <공공형 산모보건 의료센터>를 구축하여 24시간 운영하고, 이동버스를 운행하여 교통접근성이 어려운 지역에 접근성을 향상 시켰으며, 산소와 병동 내 신생아 방을 설치하여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관리와 육아서비스를 동시에 제공하고 있어 큰 호응을 얻고 있다.

남원시는 출산장려의 새로운 시책으로 모든 대상자에게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본인부담금 지원, 난임 시술 본인부담금 지원, 셋째 이상 신생아

건강보험료 지원 사업 등을 보건복지부와 사회보장 협의가 완료되면 2017년부터 적극적으로 시행할 예정이다.

이 외에도 분리기 확산을 위하여 흥부재와 함께하는 유모차 행진, 다자녀 가정 사진 콘테스트 및 작품 전시회, 탄생 축하를 위한 신생아 사진 신문 게재, 출산 의식전환을 위한 범시민 캠페인 등을 전개할 계획이다.

저출산의 원인은 의식이나 가치관의 변화에서부터 경제적, 사회적 요인 등 다차원에 걸쳐 나타나는 것으로 일자리-결혼-주거-보육·교육-복지의 유기적 연관성 강화를 통한 해결방안 모색이 필요하여, 청년 일자리 제공을 위한 기업유치, 청년층 귀농·귀촌 활성화, 미혼 남녀 만남 기회 주선, 다자녀 공무원 승진 가점 부여 등의 다양한 시책들을 발굴하여 타 지역과 차별화해서 추진할 계획을 밝혔다.

/남원=유영철 기자

# 내달 화장 장려금 지원 순창군민 '환호성'

### 1년이상 주민등록돼 있는 사람 사망시 25만원 지급

순창군이 화장장이 없어 불편해 하는 지역주민들을 위해 8월 1일부터 화장장지원금 25만원을 지원하기로 해 지역주민들이 크게 환영하고 있다.

화장장려금을 지원하기 위한 준비도 마쳤다.

최근 조례개정 및 관련예산도 확보한 상태다.

세부계획 확정에 따라 군은 8월 1일부터 순창군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이 사망해 화장으로 장례를 치를 경우 연고자에게 지원금 25만원을 지급하게 된다.

지역주민들은 이번 화장장지원금 지원 결정에 대해 크게 반기는 분위기다. 순창군에는 그동안 화장시설이 없어 군민들이 남원, 전주, 광주 등 인근 도시의 화장장을 이용해 왔다.

특히 화장장이 위치한 지역 주민들

외에 타 지역 이용자들은 고가의 이용료를 지불해야 했기 때문에 군민들이 화장장 이용 시 이점으로 불편을 겪고 있는 실정이었다.

실제 순창군 주민이 남원시의 화장장을 이용할 경우 남원시 주민은 6만 원인데 비해 순창군민은 50만원의 이용료를 지불해야만 했다. 전주와 광주 등 인근 도시의 화장장 이용도 비슷한 실정이다.

군 측은 순창군의 화장률이 2009년 30.3%를 넘어섰고 2014년에는 49.2%를 기록하는 등 비율이 계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군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는 것은 물론 화장장 장려를 통해 묘지 증가에 따른 국토 훼손을 방지하기 위해 제도를 본격 시행한다고 밝히고 있다.

황숙주 군수는 "이번 군민 화장 장

려금 지원사업 추진으로 순창지역에 화장장이 없어 불편했던 문제점들을 어느 정도 해소할 수 있게 됐다"면서 "화장장은 묘지문제도 국토의 훼손을 부르는 등 부작용이 심각한 매장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만큼 군민들이 화장 장려금 지원금을 이용할 수 있도록 이용 안내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풍산면에 사는 이모씨도 "부모님께서 돌아가셨을 때 광주에 있는 화장장을 이용했는데 사용료가 생각보다 많이 들어 놀랐는데 군에서 이런 지원제도를 마련해 앞으로 군민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 같다"고 환영의 뜻을 밝혔다.

한편 화장 장려금을 신청하고자 하는 사람은 신청서와 서류를 지참해 화장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주소지 관할 읍면사무소에 신청하면 된다.

/순창=이양원 기자

# 남원시, 체력수준 측정 '국민체력100' 체력왕 선발

과학적으로 시민의 체력수준을 측정하고 몸에 꼭 맞는 운동처방 제공하는 '국민체력100' 남원체력인증센터에서 2016 남원시 체력왕을 선발한다.

이번 선발대회는 많은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오는 7월 25일(월)부터 8월 20일(금)까지 한 달 동안 남원체력인증센터에서 열리게 된다.

청년층, 중년층, 장년층의 3개 계층으로 나눠 각 계층에서 남·여 한 명씩 총 6명을 선발하여 '체력왕'으로 임명한다.

체력왕으로 뽑힌 참가자에게는 9월 24일로 예정된 전국 체력 왕중왕 선발대회에 남원대표로 참가할 수 있는 자격과, 부상상으로 15만원 상당의 상품이 주어진다.

참가자를 역시 기념품, 행운상 등 푸짐한 상품을 받을 수 있다.



남원시 이환주 시장은, "인생 100세 시대, 과학적으로 체력을 확인하고 관리할 수 있는 체력인증센터야말로 남원시민의 건강을 책임지는 장소"라며, "이번 체력왕 선발대회를 통해 선발된 체력왕이 전국대회에서도 건강

도시 남원의 명예를 드높이기 바란다"며 소감을 밝혔다.

이번 대회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민체력100 남원체력인증센터 (Tel. 063-633-7330)에 문의할 수 있다.

/남원=유영철 기자



# 임실군 도라지꽃 축제 성황리 막내려

### 관객 1천여명 방문... 다채로운 체험프로그램 인기

'제1회 임실군 도라지꽃 축제'가 비가 내리는 곳도 날씨에도 축제 기간 1천여명의 방문객이 다녀가 성황리에 막을 내렸다.

고엽제 전우회 임실지회와 금동마을 주민들이 주최한 이번 축제는 지난 16일부터 17일까지 신안리 금동마을에서 심민 군수를 비롯한 이용호 국회의원, 사회단체장 등 30여명의 내·외빈 및 관람객 1천여명이 방문해 절정에 이른 도라지꽃을 감상했다.

또한 필봉농악, 35사단 군악단 등이 마련한 문화공연과 가족동요대회, 도라지 짝기 대회, 초대가수와 함께하는 가요제, 행운권 추첨 등 다채로운 체험프로그램이 어우러져 참가자들의 큰 인기를 얻었다.

축제장을 찾은 관람객은 "비가 와서 조금 불편했지만 도라지차 시음과 향토음식을 맛볼 수 있어 즐거웠다"며 "도라지꽃이 만발한 마을이 아름답다"고 말했다.

이어, 한상수 축제추진위원장은 "축제를 위해 노력한 행사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며 "앞으로도 지역문화축제로 발돋움 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심민 군수는 인사말을 통해 "즐거움 마음으로 고향의 향수를 느끼며 좋은 추억 많이 담아가길 바란다"며 "앞으로 지역특산품을 소재로 한 지역의 대표적인 축제로 자리매김 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임실=진홍영 기자



# 딸기재배 후 휴경기간 상추도 수확 가능

순창군이 딸기 고설재배 시설 이용도를 높일 수 있는 작부체계 실증 시험에 성공하고 보급준비에 나섰다.

군 농업기술센터(소장 이구연)는 고설재배시설을 이용해 9월부터 이듬해 5월까지 딸기 수확을 마치고 약 3개월의 휴경 기간에 상추, 열무 등을 수확할 수 있는 작부체계 실증 시험재배가 성공을 거두고 있다고 밝혔다.

군측은 구립 딸기고설재배 농가 5농가를 대상으로 딸기, 상추 작부체계를 실증 시험한 결과 재배기간과 수익성 향상 측면에서 좋은 결과를 내고 있다고 밝혔다.

실제 이번 시험재배에 참여한 구립면 김모씨는 "5월 중순경 딸기 수확을 끝내고, 상추를 6월에 정식해 7월까지 약60일 정도 수확할 경우 딸기 단일 작목 재배에 비해서 18%이상 소득증대 효과를 볼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이번 실증 시험재배 성공은 고설식

딸기재배 농가에게는 희소식이다.

관내 딸기 고설재배 면적이 25ha로 전체 재배 면적의 80%를 차지하고 있으며, 토경재배에 비해서 시설설치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딸기재배만을 위한 시설로 한정하기에는 효율성이 낮아진다는 단점이 있기 때문이다.

군은 실증 재배 성공으로 내년에는 딸기 고설재배 시설에 상추, 열무 등을 생산하는 작부체계 기술보급에 본격 나간다는 계획이다.

한재우 특화연구계장은 "앞으로도 고설 재배시설 이용도를 높일 수 있는 작형 연구를 통해 상추나 열무보다 수익성이 높은 작물에 대한 작부체계 연구에 심혈을 기울일 것"이라고 며 "휴경 기간 시설이용도 제고를 위한 작형 개발도 고설재배농가에 현장 실증 시험을 통해 조기에 확대 보급할 수 있도록 기술지원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순창=이양원 기자

# 임실군, 65세 이상 폐렴구균 무료 예방접종 실시

임실군은 초고령 시대에 발맞춰 65세(1951년12월31일 이전 출생자) 이상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폐렴구균 무료 예방접종'을 연중 실시해 큰 호응을 얻고 있다.

군 보건지원에 따르면 65세 이상 노인의 폐렴구균으로 인한 침습성 폐렴, 뇌수막염 등)은 생애에 치명적으로 작용할 수 있으며 균혈증은 사망률 60%, 수막염의 경우는 80%에 이른다.

이에 따라, 지난 2013년부터 어르신들의 질 향상을 위해 무료접종을 실시하고 있으며, 효과적인 예방과 지역민의 큰 호응에 힘입어 올해도 1천4

백만원의 예산을 투입해 현재까지 340명이 접종을 완료했다.

군 관계자는 "고령자나 심장병·당뇨병 등 만성질환자가 감염될 경우 치명적"이라며, "폐렴구균 예방접종으로 폐렴, 수막염 등을 예방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미접종 어르신들은 신분증을 소지하고 군 보건지원이나 가까운 보건지소 및 보건진료소를 방문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폐렴구균 예방접종과 관련 기타 궁금한 사항은 군 보건지원 예방접종실(☎640-3126)로 문의하면 된다.

/임실=진홍영 기자

# 고창군 장애인일자리사업 교육

고창군(군수 박우정)과 한국장애인개발원이 '2016년 장애인일자리사업 교육'을 실시했다.

교육은 18일 고창군민복지관에서 장애인일자리사업 참여자 30여명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장애인일자리사업은 취업 취약계층인 장애인에게 일자리 제공을 통한 사회참여 확대와 소득보장 지원, 근로연계를 통한 자립생활 활성화를 위해 매년 일반형일자리와 복지일자리로 구분해 시행하고 있다.

사업 참여자는 올해 1월부터 12월까지 1년간 고창군청과 각 읍·면에서 복지행정 업무지원과 환경정비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이번 교육은 장애인일자리사업 안내, 시간 관리와 직장 내 예절에 대한 직업소양 교육으로 진행됐으며 참여자와의 질의응답으로 사업에 대한 소통의 시간을 가졌다.

/고창=김영식 기자

# 임실군 추가경정예산 편성

임실군은 주민편익증진과 지역 경기 활성화를 위해 '제1회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해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해결에 팔을 걷어 부친다.

군은 개발이 미흡하고 낙후된 주민 주거 및 영농환경 개선을 위해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150여건을 대상으로 총 23억 원을 투입한다.

또한, 조기 발주 및 예산 절감 효과를 위해 8억원의 사업비가 투입되는 80여건을 선정해 3개년 12명의 자재 설계단을 구성하고 7월중 설계를 마무리 할 계획이다.

특히, 설계 후 내달 일괄 착수에 오는 12월초까지 사업을 마무리할 예정이며, 하반기 내수경기 진작과 일자리 창출, 지역경제 활성화를 물론 주민불편 해소에 기여할 전망이다.

/임실=진홍영 기자



# 순창서, 효율적 범죄예방 분리운영

순창경찰서(서장 최규은)는 18일부터 경력의 효율적 운영을 통한 범죄예방과 주민 치안만족도에 비해서 시설설치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딸기재배만을 위한 시설로 한정하기에는 효율성이 낮아진다는 단점이 있기 때문이다.

군은 실증 재배 성공으로 내년에는 딸기 고설재배 시설에 상추, 열무 등을 생산하는 작부체계 기술보급에 본격 나간다는 계획이다.

한재우 특화연구계장은 "앞으로도 고설 재배시설 이용도를 높일 수 있는 작형 연구를 통해 상추나 열무보다 수익성이 높은 작물에 대한 작부체계 연구에 심혈을 기울일 것"이라고 며 "휴경 기간 시설이용도 제고를 위한 작형 개발도 고설재배농가에 현장 실증 시험을 통해 조기에 확대 보급할 수 있도록 기술지원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순창=이양원 기자

# 남원농기센터, 농업정보센터 운영

남원시농업기술센터(소장 이환중)에서는 농업인에게 신속하고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현장대응형 영농상담을 농업정보센터에서 운영하고 있다.

현장대응형 영농상담은 작목별, 상황별 영농에 대해 농가가 홈페이지 영농상담 코너에 질문글을 올리면 해당 담당자들이 답변을 달아 문제해결에 도움을 주는 서비스이다.

또한 농업정보센터 모바일 앱에서도 실시간 문의글을 올리고 답변을 받아볼 수 있어 현장에서도 1:1 영농상담이 가능하기 때문에 농가들 사이에서도 무척 인기가 높다.

/남원=유영철 기자